

“물놀이장·계곡에 풍덩”...해남군, 여름 피서지 ‘각광’

공룡박물관·고천암공원 등 명소 ‘인기’ 바닥·야간 음악분수 등 볼거리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남 곳곳의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해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내 물놀이장은 청정 자연에서 온 깨끗한 물과 탁 트인 경관, 주요 관광지 인접이라는 장점을 갖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 시설인 해남공룡박물관 ‘공룡 물놀이 체험장’은 3세부터 13세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간으로, 슬라이드와 바닥분수, 놀이대 등이 마련돼 있다. 사위실과 그늘막 쉼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8월24일까지 박물관 입장객에 한해 무료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하루 총 6회 운영된다.



해남군의 주요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한 가운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동해리물놀이장,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장, 봉동계곡, 고천암 생태공원 바닥분수.



(해남군 제공)

지난해 조성한 해남군민광장 음악분수는 하루 평균 200~500여명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총 65m 길이의 군민광장 분수시설은 주간에는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터로 운영하며, 야간에는 음악분수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음악분수는 조명과 음악, 분수 물줄기를

동시에 제어해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무더위에 지친 이들의 힐링 명소가 되고 있다. 주간 운영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0분 간격, 야간 음악분수는 오후 8시30분부터 9시까지다. 고천암 생태공원은 생태 놀이터와 피크닉장, 연꽃단지, 갈대 탐방로, 철새 탐조대 등 자연 친화적 시설과 함께 매주 금·토·일 바닥분수를 운

영한다. 어린이를 위한 분수 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발담금 시설도 있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김치마을로 유명한 북평면 동해리의 물놀이 체험장은 오는 19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된다. 2007년부터 매년 개장해온 이곳은 두류산 자락 지하수를 매일 교체해 사용할 만큼 수질이 뛰어나 연 1만명 이상이 찾는 인기 물놀이장이다. 정자, 평상, 사위실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

져 있다. 현산면 봉동계곡 ‘구수골 물놀이장’은 수심이 50cm~1m로 낮아 어린이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는 포레스트수목원과 삼림욕장도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마을청년 회에서 주차료 및 정자 사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이곳은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양치유’ 완도, 섬의 날 개최 준비 ‘착착’

내달 7-10일 해변공원 일대 ‘천천히 돌아보고 섬’ 주제

완도군이 제6회 섬의 날 개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제6회 섬의 날’ 기본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부시장, 강태욱 행사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시행 계획과 준비 사항 보고,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8월8일인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섬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와 완도군이 공동 주관,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8월7일부터 8월10일까지 해변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형 전시관 및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8월7일에는 전야제의 일환으로 박서진, 박지현, 한혜진, 정다경 등이 출연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 축하쇼가 진행된다. 8일에는 ‘섬의 날’ 주제를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섬 발전 유공자 포상, 퍼포먼스 등 정부 기념식이 열리고, 하현우, 안성훈, 트리플에스, 권진아가 축하 공연을 통해 행사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9일에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개방송이 확정돼 노라조, 정준하, 조혜련, 스윗소로우, 페퍼톤스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함께 한다. 10일에는 ‘섬 주민 트로트 대전’과 폐막식을 통

해 행사의 막을 내린다. 행사 기간 중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섬의 날’ 행사를 알리기 위한 팝업 이벤트가 열리며, 소안면과 신지면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섬길 100을 뜻하는 ‘백섬 백길’ 걷기대회, 보길도에서는 섬 풍류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섬은 생태, 문화, 관광 등 미래 자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 만큼 섬의 무한한 잠재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 속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쉼터·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안전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 선정

참전 수당 상향평준화 적극 대응

강진군은 17일 “지난 14일 군청 군수실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직접 참석해 강진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진군은 국가보훈부의 참전 수당 상향평준화 권고에 적극 대응하며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앞장선 결과로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강진군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상향 조정해 평균 지급액 이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강진군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의 지속적인 노력은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당연한 보답해야 하는 것들을 우수하게 평가해줘 감사하다”며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하반기 보훈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년 연속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시는 지난 15일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정책 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 분야’ 장관상

도시 경쟁력·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

목포시는 17일 “지난 15일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정책 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 명품도시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대상 수상은 6년 연속 쾌거로, 문화·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온 점을 인정받은 뜻 깊은 수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매년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 올해 평가는 도시재생·인구감소대응·기후변화(에너지전환)·스마트도시 4개 우수정책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세부 평가 과정은 1차는 우수정책의 계획 효율성, 거버넌스 파급효과, 지역 정체성, 삶의 질

향상, 사후관리 지속가능성을 서면으로 평가(50%)했다. 2차는 1차 서면평가를 바탕으로 수상 가능한 도시 10곳을 선정해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평가(50%)를 받는다. 이어 전국 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국토연구원 공동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히 목포시는 우수정책 공모 분야인 도시재생에서 거버넌스 운영, 주민역량 강화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산업·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활력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 내일 개장

내달 16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진도군은 17일 “오는 19일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입회면 남동리에 있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물놀이장에는 유아용(수심 0.5m) 1개소, 아동용(수심 0.8m) 1개소, 총 2개의 물놀이장과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 해변용 의자(비치체어) 등의 휴식 공간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8월16일까지 28일간 무료 개방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진도군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장 안전표지판 설치, 음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광 대마안골 계곡, 내일 개장

영광군은 17일 “군 내 유일 계곡 물놀이 명소인 대마안골 계곡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개장한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영광군은 안골 계곡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골 계곡에 평상, 화장실, 주차장,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갖춰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싶을 있는 ‘의자’를 무료 대여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벼멸구 적기 방제·피해 예방” 당부

벼 포기당 2마리 ↑ 발견시 즉시 방제

함평군이 전남 일부 해안 지역에서 중국발 벼래해충인 벼멸구가 발견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와 병해충 방제단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전남농업기술원과 협력해 관내 주요 지점에서 벼멸구를 예찰하고 일부 채집된 멸구류(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를 정밀 동정하고 있다. 벼멸구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해 편서풍을 타고 서해안과 전남 해안으로 날아오는 이동성 해충으로, 벼 줄기의 즙을 빨아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 이번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지역에 나타난 벼멸구는 6월17일~24일 사이 날아온 것으로 분석됐다. 벼멸구는 국내 도착 후 약 27~30일 후 성충으로 성장하므로 7월13~1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체 수 밀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세대 증식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다. 방제는 벼 재배지의 벼멸구 발생 밀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벼 포기당 2마리 이상의 약충 또는 성충이 보이면 방제 기준을 초과한 것이므로 즉시 방제해야 한다. 방제는 기온이 낮고 바람이 약한 아침 시간에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같은 성분의 약제를 반복 사용하지 않고 작용 기작이 다른 계통의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드론 방제의 경우, 약제가 벗겨 하부까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도록 저고도·정밀 비행, 드론 하향풍 활용, 작물 생육 상태와 밀도에 따른 살포량 조절이 핵심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멸구는 고온이 지속되면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7월 중순은 방제 여부 판단의 분기점인 만큼 농업인과 방제단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함평=김연수 기자